WORLD MISSION UNIVERSITY 25TH ANNUAL

COMMENCEMENT

SATURDAY, JUNE 4, 2016/1:00PM at OMC

INDEX

발행인 송정명
편집인 임성진, 이금희, 임종호, 이황정
발행일 2016년 6월 2일
발행처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www.wmu.edu
design@wmu.edu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금년으로 우리 대학은 스물다섯 번째 졸업식(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긴 역사는 아니지만 사 반세기라는 의미 있는 축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기도 하면서 공부하셔서 귀한 이 자리에 동참하신 졸업생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도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울러 눈물과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학위 수여식을 학업 또는 과업을 끝낸다는 뜻으로 졸업(卒業)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기독교문화권 아래 있는 미국에서는 졸업을 The Commencement라고 표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작(Beginning)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과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요 신학자요 철학자 였던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 달려 나가고 싶다는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좀 쉬고 싶은 여건인데도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빌 3:13-14)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졸업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커피 잔에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다양한 글자를 넣어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업체가 성구를 넣어 만든 것도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문구를 넣어 만든 잔도 있습니다. 현대인 들이 선호하는 커피 잔에도 새롭게 전진 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 같아 고개가 끄덕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살펴 보면 Go Forward(앞으로 전진 하라)는 글귀가 새겨진 잔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의미가 있는 커피 잔을 구해 커피를 마실때마다 그 의미를 묵상 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날 마다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전진 하는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 해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 봅시다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

졸업에 즈음하여

김금자
2015-16 학생회장

졸업시즌이 다시 돌아 왔다. 해마다 맞이하는 졸업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된다. 졸업을 흔히 마지막 문을 나서는 출구, 또는 다른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도 한다. 졸업의 이런 이중적 의미는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과도 겹친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결국 살았던 것처럼 이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배움의 장, 사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신학대학교 안에서 기독교 상담학, 음악학, 신학, 목회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에 임하는 졸업생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각자 공부한 학문은 달랐다 해도 애초에 서양의 학문이 신학에서 시작되었듯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기를 바란다. 공부할 때는 매 순간 과제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글을 쓰며 그 곳에 비친 내 모습을 볼 기회가 많았으나 졸업 후에는 말씀묵상 속에서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하며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작은 교회 창립주일 어느 목사님이 김구선생님께서 하신 주례사를 영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교회를 향한 축사를 해주신 것이 기억난다. "너를 보니 네 아비가 생각난다. 부디 잘 살아라" 이 주례사는 함께 독립운동하던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김구 선생님이 던진 짧고도 긴 여운을 남긴 주례사로 유명하다. 이 주례사는 내게도 새로운 질문을 던져 주었다. 세상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 아니 믿는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멀리 퍼지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고 있는가? 옷 매무새를 만질 때 거울을 보듯 이런 질문이 내게 그리고 여기 졸업생들에게 영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울처럼 매일 사용되길 바란다.

여기에 한가지 더, 여름 특강을 수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 너무 감사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겸손히 섬기는 삶이 드러날 때, 비로서 성도들은 그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의 졸업장을 쥐고 더러는 목사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런 청지기로 사역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참된 예배자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며 응원한다.

일년여간 학생 회장으로 섬기면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선 후배간의 일치와 소통함을 노력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 학교, 동문 모두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는 같은 목적으로 하나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나서는 졸업생들을 축복하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과 사역되길...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 드린다. 그 뒤를 바짝 뒤 따르는 후배들이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길...

"너를 보니 네 아비가 생각난다. 부디 잘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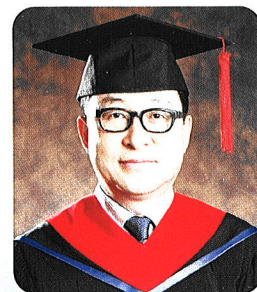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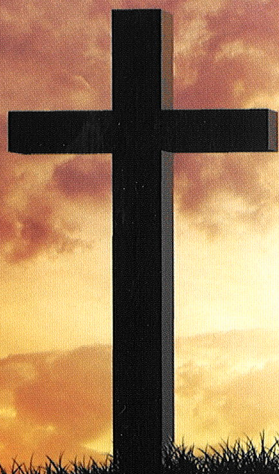
졸업사

M.Div. 문명상
졸업생 대표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메던 저를 건져 주시고 7년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신앙과 신학을 알게 해주시고 소명을 일깨워 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해주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부총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임동선 목사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우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full time으로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나서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앉아 기도하고 책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창 밖에 보이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소명을 주셨습 니다. 그 힘으로, 그 소명을 붙들고 공부하는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학업의 장을 저희들에게 제공해준 월드미션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2011년에 미국 서부의 한국계 기독교대학으로서는 최초로 ATS(신학대학원 협의회)의 인준을 취득했습니다. 이후에 학교는 눈에 띄게 변화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내주는 과제가 현저히 증가했고 수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아졌고 교수님들의 열정도 배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월드미션대학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많아진 과제를 묵묵히 감당한 저희 학생들도 월드미션대학교 발전에 일조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학우들보다 학교를 조금 더 오래 다녔기 대문에 월드미션 역사의 사분의 일 정도에는 정통합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이렇게 훌륭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에 감사하며 그 동안 저희를 성장시켜준 학교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이제 막 군복을 차려 입은 이등병 짜리 초년병들이지만 세상에 나아가 소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별 네개짜리 대장까지 높이시며 능력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의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과 남아서 학업을 계속할 학우들, 또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학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오늘 졸업식에 즈음해 다시 한 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유 공동체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능력 공동체이고, 사명 공동체이자 **치유와 회복 공동체**이다.

김현경 교수
Director of BACC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이기를 결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립시켜 나가게 된다. 교회는 또한, 능력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교회에 주셨기에, 교회는 예수 이름 가운데 두신 거룩한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또 한가지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감사하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배공동체로서, 또 능력과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비전이자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 잊혀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상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상한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성도들이 깊은 내면의 죄와 상처를 발견하고 상처의 영향력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관계와 삶의 영역들에 대해 슬퍼하며, 또 다시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일은 세상의 기관들이 아닌 바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이웃들의 상처와 죄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로를 긍휼과 온유함으로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치유 공동체가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자원들이 있다.

첫째, 안전함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존재적인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안전함이다.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산성이자 방패 시며 높은 바위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한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와 연약함, 상처와 악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힘이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관계나 연약함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 보호와 방어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자기 보호와 방어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표면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게 만든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교회는 결국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보냄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와 자신의 연약함을 보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정직한 자아인식과 죄의 고백이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 다룰 수 없는 죄와 상처의 영향력의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음과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상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긍휼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관계에서 안전함으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대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정당하며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간 실체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기에 그의 독특한 경험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감정-행동들이 정죄 감과 위협 없이 수용되고 존중될 때, 비로소 주관적인 자기 경험에서 이해했고 정당화했던 사건과 경험들을 하나님 진리의 기준 아래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내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생각, 잊혀진 기억들, 억압되어있던 감정들은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 대상이 있을 때, 가르침과 정죄 감으로 방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들어주는 치유 공동체의 사랑 어린 관심이 있을 때,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 얼마나 많은 상한 감정들이 내면 안에 쌓여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피해자라고 생각한 그 많은 상황에서 실제 자신이 가해자였고 용서를 베풀 자가 아니라 먼저 용서받아야 할 자였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긍휼과 우정이 있어야 한다.

치유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는 동료의식이다. 약한 자들의 사귐이며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축제 현장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하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긍휼과 우정이 넘치는 공동체는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적절함에 대한 정죄 감이나 수치심, 비교의식과 같은 위협적인 방해꾼이 침투할 틈을 얻지 못한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무너짐 가운데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일깨워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치유와 회복을 결단하고 나가는 긴 여정에서 다시 넘어질 수 있으나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신 스스로에서조차 잊혔던 삶의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된다. 아마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요인들 때문에, 장 바니에는 공동체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는 자리'라고 정의했고 헨리 나누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의미 있는 단어 역시 온전한 영적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긍휼과 우정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렇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갈망한다. 그러기 위해, 그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모두 다함께 갈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안전함, 수용과 존중, 그리고 긍휼과 우정이 있는 치유 공동체가 필요할 것이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겪게 되는 만만치 않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을 때, 성도는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힘을 주고 또다시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치유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이런 공동체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가며 인간의 진정한 만남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로우심에 근거 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삶에서 선포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화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반 고흐(Van Gogh)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점에 더 애착이 갑니다. 목사님인 아버지가 대단히 엄격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고흐는 자유 분방했다고 하지요. 그러니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 강요해서 신학교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의 길을 걷다가 37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흐 그림의 특징은 사람을 주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농부들의 투박한 얼굴, 거친 손 등이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하여 고흐는 인생의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의 절정은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눈이 살아있습니다. 수 많은 인물화를 그렸지만 그림마다 눈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이런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당보다는 사람의 눈을 그리는 게 더 좋다. 사람의 눈은, 그 아무리 장엄하고 인상적인 성당도 가질 수 없는 매력을 담고 있다. 거지든 매춘부든 사람의 영혼이 더 흥미롭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고흐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을 그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웅장한 예배당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장엄하고 신비롭고 거룩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통하여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의 사랑스러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우든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골을 넣으면 전설적인 농구 감독 존 우든 (John Wooden) 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UCLA 농구팀 감독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입니다. 이 분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겼고, 선수들간에 따뜻한 마음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반드시 공을 어시스트(assist) 해준 동료를 향하여 윙크를 하던지, 미소를 짓던지, 고개를 끄덕여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선수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시스트 해준 친구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존 우든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바라볼 리가 없다. 반드시 바라보게 되어있다."

남종성 교수
Director of MAT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에 동질의식을 느끼고 싶어하고, 보람을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런 마음은 질투의 마음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팀이 되었음을 확인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강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신은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신은 항상 앞서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신은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신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신은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성장합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의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드미션대학교가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해 줄 수 있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다워 지기 위해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공감해 주고,
환한 미소로 웃어 줄 수 있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 윤리의 맹점

최윤정 교수
Director of M.Div.

HUMANISM;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간주의 · 인문주의(人文主義) · 인본주의(人本主義)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상적 · 정신적 태도 · 세계관

서구의 기독교 유신론은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신론(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저절로 운행하도록 내버려두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며 따라서 계시와 기적은 없다고 보는 관점)으로 대체되었으며, 곧이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만물의 운행은 우주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자연주의에 의해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자연주의를 모태삼아 생성된 인본주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인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인본주의 관점은 역사는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인식을 가진 인간이 역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만 역사가 의미있게 되므로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와 윤리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기독교 유신론과는 달리 인본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이라는 단어가 무척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이처럼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도 없습니다. 이 보편성이 담고있는 개념들을 정말 모든 인간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아울러 모든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가장 보편적인 윤리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은 문화에 의해 또는 종교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의 인본주의는 이슬람의 명예살인 제도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의 인본주의 윤리는 그것을 인간의 보편적 인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은 왕을 신격화하는 신토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사무라이의 영향으로 체면을 존중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윤리 의식 입니다. 서구의 기독교 유신론이 규정하는 보편 윤리와는 달리 전범을 신으로 떠받들어 그들을 숭배하는 것을 자신들의 종교라고 하고 군국주의의 표상인 사무라이 전통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 안에서 윤리를 규정하므로 식민 통치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해국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 말합니다.

결국 인본주의 윤리는 특히 다문화 안에서는 모든 문화와 종교의 윤리를 다 포괄할 수 밖에 없으며,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커질수록, 또는 이슬람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그들이 주장하는 윤리를 보편적 윤리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의 주장이 인본주의의 보편적 윤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결국 '보편성'이라는 것은 상대주의 안에서 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문화 안에서 한 집단이 큰 세력으로 등장하면 그 힘의 우위가 그들이 주장하는 윤리를 보편성으로 규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인본주의는 그 윤리적 맹점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그릇 문화에 담긴 행복론

인간이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지금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인간이 얻고자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행복과 물질에 대한 가치를 유(有)라는 문자를 통해서 동양의 한자 문화권의 가짐에 대한 생각의 자취를 살펴 보자.

있을 유: 있다. 가지다.

있음과 없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을 더 가진 것일까? 한문학자들은 이 有라는 한자는 왼 손(左)으로 고기를(肉) 들고 가는 사람의 모양을 상형화 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맞다면 이 문자를 통해 우리에 말하고자 하는 뜻이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먹거리의 차이로 보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공감을 가질 수 있기에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로로 선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고기(肉)반찬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빈부를 나누는 시절이 있었다. 아시아권의 채식 중심의 농경문화권에서는 고기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먹거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푸줏간에서 고기를 사서 들고 가는 날은 아버지의 월급날이다. 개인적으로 월급날이면 쇠고기 한 근을 사서 들고 오시던 아버지가 생각나곤 한다. 적어도 그 시절 그날만은 우리 모두는 부자였다. 한 상에 둘러앉아 쇠고깃국을 나누어 먹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쉽게 그릴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고기 한 근으로 스테이크해서 먹지 않았다. 고기 한근이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쇠고기국을 만들어 온 가족이 나누어 먹고 남게 만든다. 그 고기 국그릇에 가족이라는, 서로 함께 밥을 먹는 식구라는 이름의 사랑을 담아 우리는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모가 아니라도 밥을 나누어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한다. 가족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유함 그것은 꼭 가진 것 그것이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진 것이 있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부유함이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은 나눌 때 우리는 행복을 더 실감한다. 그리고 서로가 나눌 때 친구가 된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진 것을 나누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성경엔 화목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인간에게 제시한다. 하나님께 평화와 평안을 바라고자 하는 사람은 화목 제사로 소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기름과 내장은 번제로 태우지만 다른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사는 바쳐진 고기(肉)는 그날 다 먹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다(레위기 7장). 하루 안에 한두 근도 아닌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온 동네 사람들과 그날 다 돌려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바로 그것이 화목 제사의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동양인들의 마음에 이미 담겨 있었다. 그래서인지 평화나 화목이라는 단어에 담긴 화목할 화(和) 자에도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인들 쌀을 의미하는 벼화자(禾)와 입구(口)를 합쳐서 만들었다. "밥 한그릇하자" 그것은 이미 우리들 사이에는 화목하자는 의미를 뜻 하는 표현으로 자리를 잡게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동양인들의 마음의 통로로 복음이 쉽게 전해 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적의 정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담기에 안성맞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화목함과 평화는 나눔에서 부터다라고 하나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있는(有) 사람은 말로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돈도 무력도 아니다. 사랑하고 애국하고 단결된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서로 화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공평하게 잘 나누어 먹을 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복지국가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지만 복지국가에 이미 들어선 국가들은 가진 것들을 다투지 않고 서로 잘 나누어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땀흘려 고생해서 번 것을 나와 상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얻기위해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았던 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을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공산주의 자들의 이상이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는 특별한 윤리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만일 생산을 기계와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미 무인자동운전동차가 생겼고 바둑의 천재를 이기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직업들이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 결국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생산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생산해서 가진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잘 나누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정치 윤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뿐이라고 본다.

근대에는 뱅킹식 교육방법을 통해 기술을 훈련하고 연마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던 반면 현대에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길러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창의적인 것 보다 더 중요시 여겨져야 할 가치는 도덕과 사회 윤리의 지표다.

도덕적 덕목이 리더의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버드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이미 미래의 리더의 조건으로 도덕성을 제시한 사실이 이와 같은 예측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짐의 부유와 풍성함의 복은 나눌 때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된다. 행복은 나눌 수 있는 고기 한 근과 같은 물질적 조건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마음이리라. 이것이 국그릇에 담긴 우리들만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리라 생각된다. 이 작은 행복을 향해 열심히 날갯짓을 하며 성실히 일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있음에 감사한다.

류시하 교수
Director of BABS

신앙인 멘델스죤

천재 음악가 멘델스죤(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은 19세기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Romanticism)음악을 주도 하면서 요한 세바스챤 바흐(Johann Sebastian Bach1685-1750)를 오늘날 있게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까지 유럽에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라이프지히 음악원(University of Music and Theatre "Felix Mendelssohn Bartholdy" Leipzig)을 설립한 교육가로, 그리고 라이프지히의 명성 높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eipzig Gewandhaus Orchestra)의 지휘자 로 활동하며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한편, 신앙인 으로서의 멘델스죤을 조명해 보면 그가 가진 교회음악철학이 오늘을 사는 교회음악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그는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흐를 재조명하여 오늘날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 받게 한 역할을 하였다. 바흐는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마지막엔 라이프지히 성 토마스 교회 음악 감독으로 생을 살았고 슬하에 20명의 자녀를 두다 보니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의 작품활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급급하게 지내게 되었고, 또한 당시 유명한 작곡가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이나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같은 음악가들의 빛에 가려진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어느날 멘델스죤은 바흐의 마태 수난곡(St. Matthew Passion BWV244)을 발견, 그 곡을 해석하면서 뛰어난 가치를 깨닫고 연주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바흐의 다른 음악들을 소개 하면서 그를 서양음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음악가로 평가 받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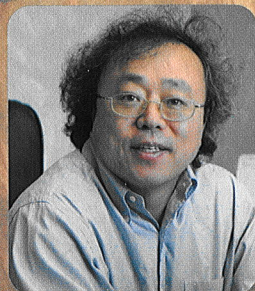
한편 그가 세운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Leipzig Conservatory)는 오늘날까지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음악학교로 성장시킨 위대한 음악교육가였다. 지난 1992년에는 독일 최고의 한스 오토 연극학교(Theaterhochschule Leipzig)를 흡수해 라이프지히 펠릭스 멘델스죤 바르톨티 예술대학으로(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Felix Mendelssohn Bartholdy" Leipzig)개명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학교로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음악인들은 뉴욕 필하모닉을 크게 성장 시키고, 음악을 통해 독일 통일에 큰 공헌을 하고 얼마전에 작고한 유명한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Kult Masur 1927-2015), 독일의 대표적 합창 지휘자, 작곡가인 게오로그 크리스토프 빌러(Georg Christoph Biller 1955-) 19세기- 20세기 초 체코 음악의 자존심이라 일컫는 레오시 야나체크(Leoš Janáček1854-1928) 등 수많은 유명 음악인들이 있다. 이처럼 음악교육가로서도 멘델스죤은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 되고 있다.

멘델스죤은 짧은 생을 살면서 당시 독일을 대표하는 라이프지히의 명성 높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eipzig Gewandhaus Orchestra)의 뛰어난 지휘자로 활동 하였다. 이 오케스트라는 1781년 창단되어 지금까지도 독일의 정통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표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유명세를 이어 오고 있다. 그 동안 카를 라이네케(Carl Heinrich Carsten Reinecke 1824-1920), 아르투르 니키쉬(Arthur Nikkisch 1855-1922), 빌헬름 푸르트벵글러(Wilhelm Furtwangler 1886-1954),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Schlesinger 1876-1962)등 독일의 가장 대표적 지휘자들이 이 곳을 거쳐 갔고 현재는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1953-)가 지휘를 맡고 있다. 멘델스죤이 그의 나이 20세에 이 유명한 그룹의 지휘자가 되었는데 이 때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며 바로 바흐의 마태 수난곡,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등을 연주 하면서 역사를 뒤로 한 음악의 선배들을 재조명하여 음악 역사를 재창조 하였고, 자신의 창작곡을 사회에 선보이는 역할을 하며 오늘날의 지휘자 역할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지휘자 였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음악가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 일생동안 불운과 좌절을 경험하며 지내야만 했던 것에 반해 멘델스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교양 있고 전통있는 유복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죤(1729-1786)은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로 18-19세기 유태인의 계몽사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멘델스죤(1776-1835)은 은행가로 그가 가진 많은 부를 사회에 환원했던 박애주의자였다. 프랑스에 가서 은행수업을 받고 그의 형 조셉 멘델스죤(1770-1848)과 베를린에서 'Mendelssohn & Co'라는 사설 은행을 경영하였는데 이 은행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은행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이런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멘델스죤은 저속한 오만심이나 교만에 빠지지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베풀며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매우 낙관적으로 살았던,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음악인이었던 것 같다.

멘델스죤은 여느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깊은 신앙을 소유한 개신교 음악가 였다. 원래 유태인인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루터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게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 멘델스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 그리고 원본을 충실히 해석하여 그것을 음악에 접목시키려 부단히 노력했던것 같다. 그것은 그가 쓴 두 개의 오라토리오 가사를 만드는 과정을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쓴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St. Paul Op.36)은 바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그의 절친한 친구 개신교 목사인 쥴리어스 슈블링(Julius Schubring1806-188)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구약과 연관시켜 연구하여 원본을 충실히하여 가사로 접목 시켜 음악에 대입시켰다. 한편 그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라토리오 엘리야(Elijah Op.70)를 극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극적인 대본을 가장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는 칼 클링게만(karl Klingemann 1798-1861)에게 부탁을 했다가 각 장면들의 극적인 요소는 잘 나타냈지만 성경의 원본을 의역화 하여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그와 손을 떼고, 다시 슈블링 목사와 손을 잡고 그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말씀을 말씀대로 올바로 해석해서 음악에 붙이려 부단히 노력했던 음악가였고, 단순한 예술 행위와 연주를 위해 작품을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음악을 만들었던것 같다.

멘델스죤은 음악가로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던 뛰어난 예술인이었고, 균형잡힌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 귀한 것은 그가 품었던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가 오늘을 사는 교회 음악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또 무대 예술을 위해 음악을 했던 당시 유명한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찬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주목하였고, 성경을 성경대로 음악에 접목시키려 했던 진정성있는 교회음악인이었다.

오늘날 교회음악은 점점 더 미를 추구하는 탐미주의적(Aestheticism) 사상에 심취되어가고 있다. 말씀과 전통의 본질이 왜곡된 채 현대사회만을 대변하는 실용주의적(Pragmatism) 교회음악으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신앙인 멘델스죤이 외치고 있는 교회음악철학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싶다.

가시 속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후서 12:7-10

BABS 최은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설교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도 떨리더라구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하루종일 머리 속에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대회 때 떨지 않게 해달라고 창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의 솔직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왜 나는 어떤 힘듦이나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그저 문제를 해결 해달라고만 기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물어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신체 안에 가시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간질과 안질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죄된 본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 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세 번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앞쪽에 보시면("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이 나의 문제들을 주님이 빨리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했던 저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앞쪽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가시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자신의 기도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조차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나 일화를 말해드리자면 제가 21살 때 군입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성경책을 주일 저녁예배 때 저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또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 니다. 왜냐하면 저녁예배 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저녁 예배때..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받으러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예배를 못갔습니 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부담감 이였거든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필요없는 존재 같다.'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되자 점점 힘들어지더라구요. 아무것도 의지 할 수 없을 때 결국 하나님께 기도 하게 되더라구요. 제 연약함을 해결해달라고요. 그땐 참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모순적이지만 저는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약함을 허락해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가시가 너무 싫었는데,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자 제 약함을 기뻐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시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가시를 허락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합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수 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 매를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설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응답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과도 바꿀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참으로 많지만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의 가시마저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길, 우리의 길, 하나의 길

고린도후서 13:4-7

M.Div 박노현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 제목이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길'에 관한 것일까요? 왜 제가 '길'을 들고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처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도시는 발전을 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고린도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의 여러문제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13장은 과연 '사랑'에 관한 메세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12장 31절을 보면 제가 왜 '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12장은 은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내에서 은사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 1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종합하면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그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처음의 물음은 "왜 길인가?"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은 "그 사랑과 그 길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1~3절은 교회 내에서 은사를 사용하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사랑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례히 행치도 말아야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은사의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시기 하고 있는 자들, 고린도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사랑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교인 여러분' 나아가 지금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박노현'이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당시 교인들과 지금 교인들 즉, 우리들은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4~7절은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셨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고린도교인들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교인 서로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라며 뽐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다름 아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을 챙기고, 교만한 모습.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는데 저는 그 성경을 하나의 도구 삼아 정죄의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성경위에 서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며 조각을 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현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의로워진 제 모습이 참 뿌듯했습니다.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박노현. 멋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게 '노현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누가 더 좋고 나쁜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노현아 사랑은 나다, 내가 사랑이고 나로 향하는 그 길이 사랑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갖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은사도, 현 교회가 가진 문제도, 내가 가진 문제도 모두 뛰어 넘어 한 곳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의 길은,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래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저희를 위해 자기의 모습까지도 내려놓은,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향하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걸어 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입니다. 고린도교인들이 할 수 없었던 사랑 앞에 자신들의 절망을 바라 보았던 것.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윤석언입니다.
저는 1991년 23살때 성가연습하러 교회가는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이하로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느낄수도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40여일간은 혼수상태로 있었으며 깨어 나서도 한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성대 한쪽이 마비되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장애인의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하고, 씻겨줘야 하고, 옷을 갈아 입혀 줘야 합니다. 숨을 고통없이 쉬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관지에서 가래를 뽑아줘야 하고, 낮은 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 증으로, 오래 앉은 자세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때에도 낮은 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때문에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대변을 저의 의지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 입니다.

긴 시간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은지 12~13여년이 되었을때, 저는 수시로 중환자실(ICU)을 가야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던중,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친구들을 하나 둘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격려해주는 신실한 친구 목사님을 보내 주셨고, 저의 마비된 육신을 보살펴 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개인 간호사님을 무료로 보내주셨습니다.

2~3년을 넘기기 힘들다는의사들의 말을 뒤로 하고, 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가면서 저는 특수장치가 있는 컴퓨터를 통해 세상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어머님의 지인을 통해서, 경희 사이버대학을 소개 받았고,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반 기대반으로 오랜시간 접어두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전공은 문서 사역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문창과에 들어 갔습니다. 학업을 시작하면서 느린속도지만 성경을 한자 한자 쓰기 시작하였고, 졸업하면서 신약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약을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몸의 컨디션으로 힘든 고비가 몇 번 있었지만,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제때에 학업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대학공부를 마쳐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2년 전 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비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해 달라고 감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 비록 서투르고 느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배워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교사님 친구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도전 받고 훈련받으며 하루하루 지내게 해 주십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경구절은 주님께서 제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 "
> 두려워 말라
>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 [이사야 41장 10절]
>
>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히브리서 11:6]
> "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 했을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더 많은 재능을 가지신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삶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한분 한분의 삶에서도 저에게 나타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2016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을내음 기다리는 어느 무더운 날...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MAT 유혜경

파아란 하늘은 저리도 청명한 가을인데, 가쁜 숨 한 모금에 와 닿는 느낌은 아직도 한 여름이다. 지난 한달 여, 두번의 호흡곤란으로 응급실행과 또 한번의 쓰러짐을 겪은 나의 몸은 그 어느해 보다 소중하게 가을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흘깃 바라 본 달력에 새겨진 10월이란 글자의 의미가 무색하도록, 유난히 긴 올해 여름의 이 무더위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가을향기 듬뿍 담은 살랑바람으로 나의 가쁜 숨을 시원하게 틔워주리라.

20여년 전, 어둠의 깊고 긴 시간을 지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이었고, 이후로도 그 하나님 한 분이 내가 살아있음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때 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고 계시며,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때 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리의 참된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에, 때로는 이 삶이 힘겹고 지칠 때 있어도, '인내'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내던 중,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한 손에 잡히는 자연스런 색감의 소책자는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주제를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가 집중하게 해 주며, 옆에 놓인 한 잔의 커피를 친구삼아 한 장, 한 장, 작가가 끌고가는 펜 끝의 논리를 따라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 여행에 참여하게 해주었다.

저자 자신이 청소년 시절 무신론에 빠져있던 경험이 있었기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의 질문에 다가가, 사르트르나 도킨스 등 완고한 무신론자의 답들을 서술해 보여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의 한계를 차분히 풀어내며, 더 나아가 무신론자 시절 저자 자신 속에 감추어졌던 군중심리와 자기도취적 교만까지 고백적으로 서술하여, 거대한 우주와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인정은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실재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큰 그림'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또한, 합리적 이성주의와 과학적 사고등의 한계를 짚어낼 때,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 그가 지녔던 옥스퍼드 대학 분자생물학 박사 이력을 십분 활용하여 과학사, 과학철학등을 아우르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얄팍한' 접근과 '깊숙한' 접근을 구분하려 하는것의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과,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 다 증명할 수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여러 신념의 부분을 인정하며, 깊은 직관에 기초한 상상력의 도약을 통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흥미로운데,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말, "새로운 땅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 라는 인용을 한다. 맞다, 우리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이 '새로운 눈'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평범한 일상 가운데 깨달아진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사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신약성경 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롬 12:2) 말씀을 인용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설득하고 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왜곡 된 세상만 보던 자가 회심 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대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더해지는 흥분과 열정과 경이감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탐험하게 되기에 자신도 모르는 힘과 추진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수임을 서술한다. 이 지도 자체가 풍경은 아니지만 길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의 신조는 믿음의 여정에 발을 내딛은 사람들에게 지도의 역할을 해 주는 것임을 생동감 있게 전개해 준다. 진실로 기독교의 신조는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정제해서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끄는 푯대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큰 그림'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함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지만, 이렇게 '눈을 뜬 자'가 좀 더 주의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왜곡 된 베일을 만들어 실재를 가리고 싶어하는 '장밋빛 안경'을 종종 쓰기도 한다는 현실임을 완곡하게 짚어준다. 우리가 복음의 렌즈를 통해 볼 때에만, 우리의 진짜 처지인 '죄인'임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진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바른 진단으로 바른 치료법에 이르게 하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큰 그림' 속에서 신조가 갖는 의미는, 피조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불확실한 것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를 믿음 안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이해의 틀로서 꼭 필요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풀어준다. 또한 저자는 '신조'를 담아내는 수단인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실재' 사이에 항존하는 상당한 간극을 설명하며 이 한계성과 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더 깊은 실재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파노라마처럼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관념에 머무는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시며 예배와 경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 할 수 없고, 존 던(John Donne)이 사용한 표현처럼, "영광의 넘치는 무게" 를 감사로 느끼게도 하시는 결코 몇 마디 말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분이시다.

저자의 기억으로 서술한 표현 중, 복잡하고 클수록 한 눈에 다 보기가 힘들다 한 것 같이 우리는 신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어떠함' 속으로 초대 되어진 축복받은 자이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때로는 고난의 풍랑 가운데 놀라기도 하고, 더디 말씀하시는 듯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 인내해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말씀을 성령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따라가노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길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끄심을 또한 고백하게 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소망 중에 인내하며 걸어가다보니 어느덧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이제는 자발적 기쁨으로, '발코니에 서서 바라보는 자'이기 보다는 '길 위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순례자 되기를 순종하게 더욱 이끄시리라.

주님, 이 긴 여름 끝나고 가을은 분명 옴을 믿듯이, 믿음의 경주 후에 기쁨으로 추수 할 곡식 많을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Open School Festival

WMU 학교 설명회, Praise & Worship, 공개강의를 통합한 오픈 스쿨 페스티발이 3월 29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월친소(WMU에 내 친구를 소개해주세요) 페스티발" 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송정명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오픈 스쿨 페스티발은 '꿈이 있는 자유'의 정종원 교수와 함께 하는 프레이즈 워십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다. 학교 설명회는 학교 홍보 동영상과 더불어 이금희 입학처장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고, 더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정보보조와 장학금 혜택 그리고 입학문의에 대한 개별 상담도 이루어졌다. 총 일곱 명의 교수가 진행한 삶과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개 강의로 참가자들은 본교를 경험하게 되었다. 강의실마다 참가자들로 가득 가득 메운 수업은 참으로 그 열기가 대단했을뿐 아니라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6월 27~30일에 있을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도 학교 행사에 참여해 먹거리 볼거리들로 행사 분위기를 활기차게 했다. 학생회와 각 과대표 그리고 선교 동아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백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 되었다.

공개 강의에 초대받은 사람 전원은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았고, 초대 받은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추첨을 통해 100불 이상의 선물권을 증정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로 5명 이상을 초대한 BACC 이현정 학우는 학교에서 준비한 500불 상당의 아이패드를, 초대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MACC 이미라 학우는 100불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마다 "공개강의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많은 준비를 해오시는 교수님의 강의가 인상 깊다", "찬양 예배를 통해 학교의 영성을 느낀다" 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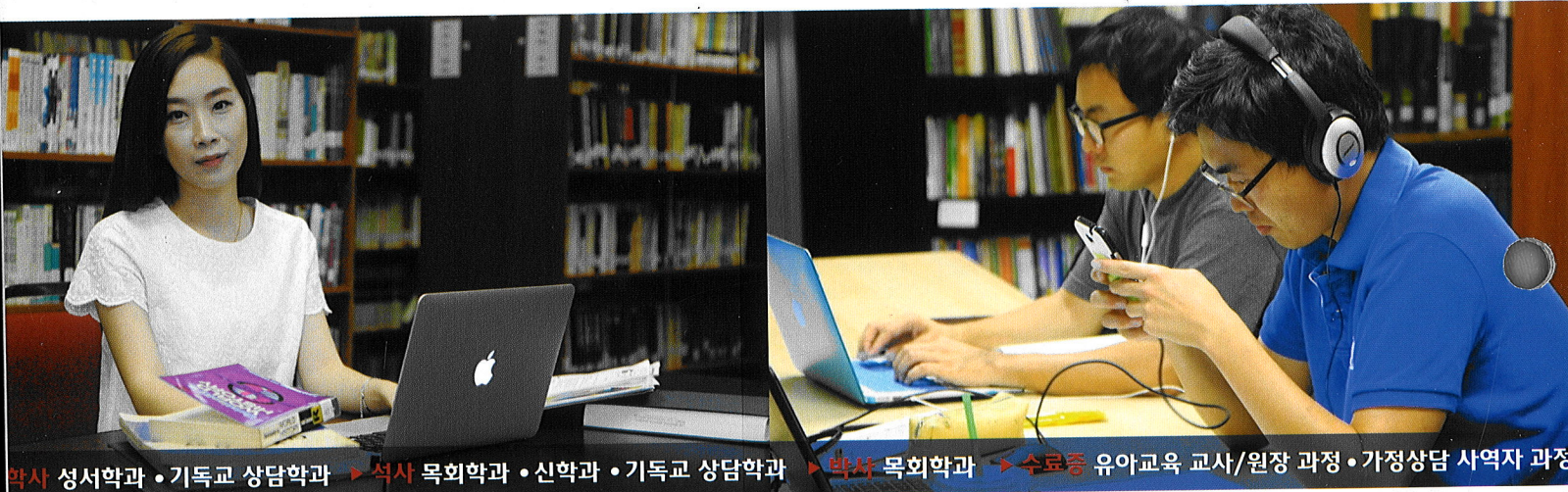
오픈 스쿨 페스티발이 형식적인 학교의 행사로 그치는것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에 문턱을 낮추고 한발 더 다가가 세상을 속에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월드미션이 되길 기대한다.

제 19회 학생 음악회

1년에 두 차례씩 문화 사역을 통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취지와 학생들의 연주 실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는 학생 음악 축제가 4월 23일 한길 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있었다.
이번 19회 음악회의 주제는 "His Confession of Praise"로 두 개의 오라트리오의 구성으로 멘델스죤의 교향곡 5개 중 2, 5 번의 중요 악장을 합쳐서 진행되었다. 음악대 학장 윤임상 교수는 "연주회를 통해 사도 바울과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역사를 크게 이루셨던,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주는

* 지휘: 이사효(Lee, Sahyo), 염영옥(Yeom, Young Ok), 조은진(Cho, Eun Jin), 안효정(An, Iris Hyojung), 황신애(Hwang, Shine), 오정근(Oh, Jungkeun),
* 성악: 공줄리(Gong, Julie), 김희우 (Kim, Esther Heewoo), 조지영(Cho, Jiyoung),
* 특별 게스트: David Kress, 신선미(Shin, Sunmi), 오위영(Oh, Wi young), 박정환(Park, Jung hwan)
* World Mission University Chamber Orchestra(29명)

이 날 행사에 교수진과 많은 학우들이 함께해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에 박수를 더했다.

월드미션대학교 프로그램
World Mission University Programs

		전공학과 Programs	졸업 연한 Completion	진로 Designed for	프로그램 장점 Program Highlights	수업방법 Methods
학부	BABS	성서학과 기독교 사역 전공	126 학점 (4~6년)	대학원 진학, 목회후보생, 군종	기독교 사역 전공을 통해 영성과 심성 발달	캠퍼스 온라인
		성서학과 다문화 기독교교육 전공		기독교 유아교육 교사/원장	다문화 기독교교육 전공을 통한 기독교 유아교육교사 자격증	
	BACC	기독교 상담학과	126 학점 (4~6년)	목회후보생, 기독교 상담자	기독교 상담학의 기초 정립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상담 훈련	캠퍼스 온라인
	BAM	음악학과	130 학점 (4~6년)	클래식 반주자, 찬양사역자	성악, 기악, 키보드, 기타, 드럼, 작곡 전공의 음악사역자 양성	캠퍼스
대학원	M.Div	목회학과	93 학점 (3~4.5년)	선교사, 목사, 군목, 교목, 원목, 평신도 지도자	목회 후보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학과 인격의 훈련, 이민목회와 선교사 사역 기술 습득	캠퍼스 온라인
	MAT	신학과	58 학점 (2~3년)	목회자, 성경연구원, 평신도 지도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상과 흐름을 파악하여 바른 성경적 가치관 습득	캠퍼스 온라인
	MAM	음악학과	47 학점 (2~3년)	클래식 지휘자, 반주자, 찬양사역자, 교회음악지도자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철저한 신앙교육, 클래식 연주자와 교회음악 사역자 양성	캠퍼스
	MACC	기독교 상담학과	53 학점 (2~3년)	기독교 상담사역자 전문 상담사	신학과 상담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가 수여하는 기독교상담사	캠퍼스 온라인
	D.Min	목회학 박사	34 학점 (3~6년)	담임목사, 선교사, 원목, 군목, 특수 목회, 강사, 교수	전문 사역 분야의 개발을 위한 최고 학위 과정, 현장 리서치와 연구를 통한 목회 지도력 향상	캠퍼스 온라인
수료증	ECE	유아교육 교사	15 학점	유아교육 교사	유아교육 교사, 유치원 설립	캠퍼스 온라인
		유아교육 원장	18 학점	유아교육 원장		
	FCC	가정상담 사역자	18 학점	가정상담 사역자	본교 대학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일부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전	
	WCC	WMU 상담교실	12주, 2학기	기독교 상담사역자 교회 상담사역자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인간관계, 하나님 형상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	캠퍼스 OC 상담교실
	WBA	WMU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한권, 10학기	목회후보생, 평신도 지도자	바른 성경해석학적 기초 위에서 성경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훈련	캠퍼스

재정지원 Financial Aids

* ABHE, TRACS 및 ATS 정회원 학교로서 연방 정부 FAFSA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영주권 자격의 BA학생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수업료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선교사, 목사, 전도사 및 사모에게 수업료 25%의 장학금지원
* Matching 장학금

제 25회 학위수여식

• 2016년 6월 4일(토) 오후 1시 • 인도(Presider): 임성진 부총장

* 입 장 (Opening Procession) ·········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 인 도 자
기 도 (Prayer) ········· 신선묵 교수
광 고 (Announcement) ········· 인 도 자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 인 도 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축 가 (Congratulatory Song) ········· 김선화 학우
총장 훈화 (President's Farewell Address) ········· 송정명 총장
졸업생 답사 (Graduate's Response) ········· 문명상 학우
* 헌신의 기도 (Litany of Dedication) ········ 졸업생, 회중, 교수단 ········· 인도 유혜영 학우

인도자: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졸업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말씀중심과 선교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도 여러분, 졸업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 중: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당신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도자: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단: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었고,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겸손, 온유,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전 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 교가제창 (School Anthem) ········· 1절: 학생 일동, 2절: 회중과 함께 ·········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 임동선 설립자
* 퇴 장 (Recessional) ········· 다 같 이

* 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위수여자 명단

- BACC: 강명금, 송영신, 신윤수, 이혜자, 정인정, 최영자 (6명)
- B A M : 민경호, 이재수, 이준섭, 장슬기 (4명)
- BABS: 강영이삭, 김민송, 김영미, 김진완, 백케이트, 신경애, 유혜영, 현혜경 (8명)
- MACC: 백미경, 서세건, 승기선, 윤성희, 이수하, 이주연, 장하얀 (7명)
- M A M : 김민규, 김은정, 김준, 남주영, 안효정, 오정근, 최솔 (7명)
- M A T : 리광, 박경희, 성지혜, 정동일 (4명)
- M.Div: 김기홍, 김대위, 김용민, 김장환, 문명상, 박균부, 송기형, 유광미, 윤성현, 이영성, 임옥선, 임현정, 정영근, 정현기 (14명)

수상자 명단

- 총장상: 문명상, 백미경, 현혜경
- 이사장상: 김은정, 장슬기
- 동문회장상: 정현기
- 교수상: 승기선, 최솔, 박경희, 강영이삭, 이재수
- 부총장상: 남주영, 신경애
- 총회장상: 정영근, 백케이트
- ABHE상: 민경호

졸업생 현황

본교는 25회에 걸쳐 7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과정별 졸업생 수는 다음과 같다.

과 정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D.Min	Total
2016	6	4	8	7	7	4	14	0	50
총 계	36	18	303	19	55	53	289	3	775

광 고

1. 2016년 제 25회 학위수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객들께 졸업생들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3. 장내의 질서를 위하여 모든 하객과 회중은 교수단, 이사진, 졸업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와 동문회, 이사진, 기도후원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임동선 작사
박제훈(1992.5.30)
1.주 님 이부－르－ 셨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일－꾼－
2.주 님 이보—내— 시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지—충성
되 라 우리 를부르셨 네 체력 학 문연마 하라 인격 영 력길러보
하 라 우리 를보내시 네 모든 민 족제자 삼아 땅끝 까 지증인되
라(길러보라) 주 － 님(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님 이부르셨 네
라(증인되라) 주 — 님(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님 이보내시 네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스－승－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주님 만 을 스승 삼 은 우 리 월 드미션대학 교

월드미션대학교 약사

Brief History of WMU

월드미션대학은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의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8. 11. 28.	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1989. 03. 0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하다.
1989. 03. 0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1989. 0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1. 03. 18.	목회학 석사(M.Div., M.A.)가 부교육국 인가(BPPVE 94310)를 취득하다.
1992. 08. 18.	대학 학부 인가 취득, 학부를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대학원을 세계선교신학대학원으로 하다.
1992. 0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0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총장 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9. 03. 25.	개교 10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06. 06.	제 8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9. 07. 01.	주정부 완전인가(Full Approval)를 취득하다.
2003. 01. 08.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학교 건물을 구입하다.
2003. 08. 23.	새 교사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2004. 08. 30.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하다.
2005. 01. 24.	음악학과를 신설하다.
2006. 02.17.	ABHE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6. 06. 26.	ATS로부터 Associate Membership Status(준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2. 20.	ABHE, TRACS로부터 일반학과,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2009. 11. 03.	TRAC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6. 07.	원격교육과정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다.
2010. 11. 06.	임성진 학감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하다.
2011. 03. 25.	ABHE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자격)을 부여받다.
2011. 06. 25.	ATS로부터 Candidate Status(정회원 후보자격)을 부여받다.
2012. 06. 02.	설립자 임동선 박사 초대 총장 이임 / 송정명 박사 2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2012. 08. 20.	대학원 상담학과(MACC)를 인가받아 신설하다(ABHE, TRACS).
2013. 08. 09.	AT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1. 13.	한인기독교상담소를 개설하다.
2014. 04. 15.	TRAC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자격)을 부여받다.
2014. 06. 07.	개교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2014. 06. 25.	ATS로부터 Online Comprehensive 인가를 받다.
2015. 06. 16.	ATS로부터 목회학석사(M.Div)과정 Residential Exception 인가를 받다.
2016. 02. 02	ATS로부터 상담학석사(MACC)과정 Residential Exception인가를 받다.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 ADMISSIONS@WMU.EDU
WWW.WMU.EDU